

蔚山地域 經濟構造와 變化方向

장병익
경제학과

<요 약>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울산시는 지금까지 제조업 성장 일변도의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21세기 국제선진 공업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21세기 국제선진 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울산의 현재의 경제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직출하여 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Economic Structure of Ulsan City and Its Change Strategy

Chang, Byung-Ik
Department of Economics

<Abstract>

With an advent of era of local autonomy, the city of Ulsan must be developed toward an internationally advanced industrial city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with complementing weakness resulted from a lean- to- one- side policy toward the expans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is research, first, tri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Ulsan's economic structure and problems inherent in it. Second, it also sought to provide chang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 21st internationally advanced industrial city in Korea as well as for the elevation of city status from the lower level(shi) to great sphere level(kwangyeok shi)

I. 서 론

울산은 1962년 시승격과 더불어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30여년이 지난 현재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시승격 이전에는 농어촌 소도유에 불과 했던 울산은 오늘날 인구, 제조업생산, 수출 및 수입, 항만 취급 물동량 등 실물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여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

그간 울산은 1995년 시군 통합을 이루어 통합 울산시로 발족하였으며, 오는 1997년에는 광역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울산시는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의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21세기 국제 선진공업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21세기 국제 선진공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울산의 경제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장에서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울산지역의 경제구조를 파악한 다음 문제점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울산의 경제구조의 변화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II. 울산지역의 경제구조의 현황 분석

1. 한국경제에 점유하는 울산지역경제의 위치

1994년 울산지역경제 규모를 <표-1>을 통해 살펴보면 울산시의 인구는 전국대비 2.1%, 경남 대비 23.9%이고, 제조업 생산액은 전국의 8.2%, 경남의 68.9%를 차지하며, 수출은 전국의 11.9%, 경남의 65.9%, 수입은 전국의 12.9%, 경남의 72.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항만 물동량은 전국의 18.0%, 경남의 86.7%, 전력사용량은 전국의 10.9%, 경남의 52.1%, 항만물동량은 전국의 18.0%, 86.7%, 전력사용량은 전국의 10.9%, 경남의 52.1%, 내국세는 전국의 5.6%, 지방세는 경남의 2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1>울산지역경제의 비중
(단위:%)

구	분	울산/전국	울산/경남
인	구	2.1	23.9
면	적	1.1	8.9
제조	업체수 ¹⁾	1.4	15.2
종	업 원 수	3.0	31.8
제조업	생산액	8.2	68.9
수	출 ²⁾	11.9	65.9
수	입 ³⁾	12.9	72.0
항만	물동량	18.0	86.7
전력	사용량 ⁴⁾	10.9	52.1
내	국 세	5.6	-
지	방 세	-	25.4

주: 1)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2)와 3)은 통관기준, 4)산업용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 현황, 1995

2. 울산의 공업구조

울산의 산업구조는 공업센타로 지정된 1962년 당시는 1차산업 종사자의 구성 비율이 총 취업인구의 71.4%, 2차산업 4.0%, 3차산업 18.4%로 농수산물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인 지방 소도시에 불과 했으나 공업센타 지정 이후 가속화된 공업화로 1차산업은 구조적으로 저하 하는 반면 광공업 특히 공업중심의 2차산업은 급격히 상승하여 1992년 산업별 경제활동인 구의 구성비율은 1차산업이 3.1%, 2차산업이 52.9%, 3차산업이 44.6%로 2차산업 주도 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2> 산업별 인구구조
(단위:%)

년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기타	계
1962	71.4	4.0	18.4	6.2	100.0
1992	3.1	52.9	44.0	-	100.0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산업기술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울산지역산업의 발전방향, 1994. 1

(1) 공업규모

<표-3>은 울산의 제조업의 규모를 전국과 비교하여 본 것인데 울산의 제조업체수는 전 국의 1.4%, 종업원수는 3.0%,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7.6%, 제조업 생산액은 8.2%를 각각 차 지하고 있다.

<표-3> 전국제조업에 대한 울산 제조업의 비중
(단위:%)

항 목	울산 / 전국
업 체 수	1.4
종 업 원	3.0
부 가 가치	7.6
생 산 액	8.2

자료: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1994

<표-1>과 동일

<표-4>에서 전국과 울산의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의 비교에서 종업원 300인 이 상의 대기업이 전국은 전체기업의 1.4%이며 전체 종업원의 34.1%를 점유하고 있지만 울산 은 대기업체가 5.6%이며 전체 종업원의 7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수 뿐만 아니라 특

히 종업원수에 있어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으므로 울산은 대기업 중심의 도시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업원 5-19명 규모의 영세기업은 전국이 64.8%(종업원 16.8% 고용)이지만 울산은 49.3%(종업원 2.8% 고용)로 나타나 울산에는 영세기업이 적고 고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20-299명의 중규모 기업은 전국이 33.7%(종업원 49.0% 고용)이지만 울산은 45.1%(종업원 18.8% 고용)인데 중규모기업 비율은 울산이 많지만 전국보다 종업원 비율이 낮다.

<표-4> 제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의 비교

(단위: %)

규 모	전 국		울 산 시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5- 19	64.8	16.8	49.3	2.8
20- 99	29.7	31.5	36.6	10.1
100-299	4.0	17.5	8.5	8.7
300-499	0.6	6.2	2.0	4.5
500-	0.8	27.9	3.6	74.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1994

경상남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94

<표-5>는 인구 30만명 이상 공업도시의 제조업 업체당 종업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울산의 제조업체당 종업원수는 여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은 거대규모의 제조업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5> 인구 30만명 이상 공업도시의 공장당 종업원수 비교

(단위:명,개소)

도시명	종업원수(A)	공장수(B)	A/B
울산	108,660	379	287
대전	43,662	1,118	39
청주	34,190	300	114
전주	18,031	381	47
마산	28,101	400	70
부천	91,156	2,906	31
포항	30,866	184	168

성남	28,769	578	50
창원	71,904	328	219
수원	48,400	426	114
안양	47,290	898	53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2) 특화공업

울산의 공업은 공업단지 지정 당시인 1962년에는 42개 공장에 종업원은 742명에 불과했으나 공업단지 건설에 따른 공장입지 증가로 1992년 현재 울산시군을 합쳐서 제조업체수는 619개소, 종업원은 139,093명으로 급증하였다.

업종별 공업구조는 공업단지 건설초기에 입지한 정유, 비료, 석유화학 공업 등에서 시작하여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체가 입지하게 되어 울산공업단지의 주도 공업이 석유화학 공업에서 자동차, 조선 중심의 기계장비 공업으로 변화를 보였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업종별 구조는 1962년 공업단지 지정 당시에는 식품가공업이 23.9%로 가장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 5.6%, 석유화학 5.0%, 기계 3.6%의 순으로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에는 석유화학 공업이 33.4%, 기계장비 공업이 20.9%, 섬유공업이 18.2%의 순으로 나타나 1962년의 식품가공업에서 석유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업단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992년에는 기계장비 공업이 71.8%, 석유화학 공업이 14.8%, 섬유와 1차 금속 등의 업종 순을 보여 울산의 공업구조는 공업단지 지정 이전에 식품가공업에서 석유화학 공업으로 발전하여 현재 기계장비공업이 주도 공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표-6> 업종별 제조업체수 및 종업원 현황

(단위:개소, 명)

	석유화학	수송용기계	섬유	기타	계
제조업체수	138	311	34	136	619
종업원수	22,460	97,345	9,395	9,893	139,093

자료: <표-2>와 동일

제조업체수를 기준으로 하여도 울산공업단지내 기계공업과 기계관련 공업이 50.2%로 주도 공업으로서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급성장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업단지이므로 공업화의 양적 확대가 큰만큼 공업구조 또한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추진하여 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울산공업단지 입지기업의 규모면에서는 대규모 개별공업 위주의 입지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부진하여 업체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성비는 94.4%를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수준인 98.6%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고용률이 21.5%로 전국 평균수준인 6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울산공업단지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공업단지의 분포

울산공업단지는 우리나라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임해공업단지로서 국력신장과 해외 진출기지의 역할을 맡아 태평양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의 비약대에 위치해 있다.

울산공업단지의 형성은 공업단지 건설 초기에 입지한 정유·비료공장에 이어 이와 관련한 석유화학, 합섬 등의 공업이 집적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공업단지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선발공업이 입지에 성공하게 되자 그 파급효과에 힘입어 자동차, 조선, 알미늄 등의 공업이 입지하게 되고 이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부품공장이 대거 입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표-7>에서 보듯이 울산공업단지는 4개의 공업단지로 나누어지며 주종공업은 석유화학, 자동차·조선, 비철금속, 전자·전기공업으로 되어 있다.

<표-7> 울산지역 공업단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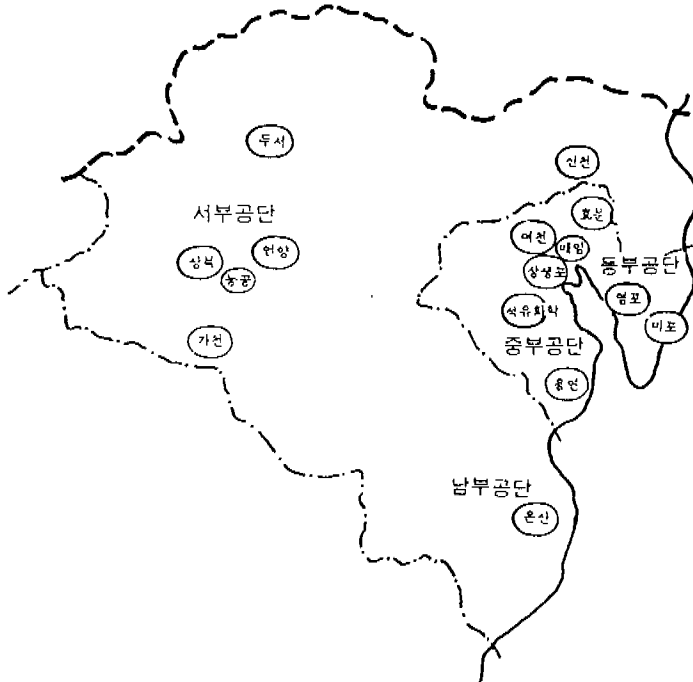
공업단지		공업지구	
단지명	주종공업	지구명	주요업종
중부공업단지 (석유화학공단)	석유화학	장생포지구 석유화학단지 용연지구 여천지구 매암지구	정유, 석유화학, 비료 석유화학 석유화학, 전력 화학, 산업기계 석유화학, 전력
동부공업단지 (미포공단)	자동차, 조선	염포지구 미포지구 효문지구 신천지구	자동차, 수송장비 조선, 산업용 로봇, 목재 자동차, 조선부품 자동차, 조선부품
남부공업단지 (온산공단)	비철금속공업	온산공단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서부공업단지 (언양지구)	전자·전기	언양지구 농공단지 상북지구 가천지구 두서지구	컨테이너,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전자, 전기 전자, 정밀기계

자료: <표-2>와 동일

울산지역 공업단지의 성장은 중화학공업을 근간으로 한 미포공업단지,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와 비철금속 및 정유공업을 근간으로 한 온산공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울산은 거대

한 공업지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울산지역의 공업단지 분포는 수송기계 관련업종 중심의 미포 국가공업단지, 석유화학 관련 업종 중심의 울산석유화학 공업단지, 비철금속관련 중심의 온산공업단지, 전자 및 자동차 부품관련 중심의 언양지구 등 4개 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세분하면 총 15개 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업지구는 울산시 남·중·동구 지역에 8개 지구, 울주구에 7개 지구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1> 울산지역 공업단지 분포
자료: <표-2>와 동일

3. 울산의 유통산업 구조

(1) 도소매업체 및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표-8>은 전국, 울산 및 대전의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울산과 대전을 비교하는 이유는 1997년 광역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는 울산시가 최근 광역시로 승격한 대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지역은 도매사업체의 비중과 도매사업체 종사자수의 비율도 전국평균이나 대전보다 낮으나 소매사업체 비율과 소매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국평균이나 대전보다 높다.

<표-8>도소매 업체 및 도소매 종사자 비율

(단위:%)

구 분	도 매 업		소 매 업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전 국	13.6	26.8	86.4	73.2
울 산	11.2	23.7	88.8	76.3
대 전	12.4	29.4	87.6	70.6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유통·서비스산업 현황, 1993. 8
대전상공회의소 자료

(2) 사업체당 종업원 및 사업체당 판매액

<표-9>는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업원과 사업체당 판매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지역은 사업체당 종업원수에 있어서 전국수준보다 낮고 대전수준보다 훨씬 열세에 있으며 사업체당 판매액에 있어서 울산지역은 도매업에 있어서는 전국수준보다 다소 높지만 대전에 비해 크게 낮으며, 소매업의 경우 업체당 판매액이 전국 및 대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하기 때문이다.

<표-9>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업원 및 사업체당 판매액 비교

(단위:%, 지수)

구 분	사업체당 종업원		사업체당 판매액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전 국	4.6	2.0	100.0	100.0
울 산	4.3	1.7	107.0	79.0
대 전	6.4	2.2	183.7	111.0

자료: <표-8>과 동일

(3) 도소매 업체당 수용인구의 비교

도소매업체당 수용인구수에서 울산과 대전을 비교해 보면 (<표-10>), 울산의 경우는 대전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체당 수용인구가 많다. 이는 울산지역의 도소매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10> 도소매업체당 수용인구수 비교
(단위:인)

구	분	도 매 업		소 매 업	
		울 산	대 전	울 산	대 전
업체당 수용인구		499	393	63	56

자료: <표-8>과 동일

(4) 시민 1인당 구매액 비교

<표-11>은 울산과 대전 시민의 1인당 연간 구매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시민의 연간 구매액은 도매업의 경우 대전의 50.7%, 소매업의 경우는 대전의 65.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울산시민의 높은 1인당 소득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주된 이유는 역외로의 자금유출과 소비자의 외지구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며¹⁾,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11> 대전과 울산시민의 연간 구매액 비교
(단위:백만원)

지역	도매업체	소매업체
울산	1.41	0.95
대전	2.78	1.45

자료: <표- 8>과 동일

(5) 도소매업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교

<표-12>는 일본의 전형적인 공업도시인 豊田(토요타)시와 日立(히타치)시, 그리고 울산시의 도소매업체의 법인 대 개인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도소매업의 법인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장병익, 지역만족도 조사, 울산시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p.25

<표-12> 도소매업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교(단위:%)

구 분	도 매 업		소 매 업	
	법인	개인	법인	개인
울산	7.4	92.6	5.1	94.9
豊田	72.8	27.2	39.9	60.1
日立	65.4	34.6	29.9	70.1

주: 울산은 1992년, 豊田과 日立市는 1990년도 수치임

자료: 豊田市 및 日立市 통계자료

<표- 1>과 동일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울산지역의 유통 및 서비스 산업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장치산업 위주의 소비도시이며,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외지로부터의 반입이 많으며 도매업의 영세성과 유통구조의 복잡성 및 다단계성으로 소비자물가가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편이다. 이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키고 또한 소비자 가계의 생계비 증가는 기업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채질하게 되며 임금인상이 원가를 상승시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4. 울산의 수출입 구조

(1) 수출입 통관추이

<표-13>에서 울산의 수출입 통관 추이를 보면 수출·수입 비율이 1978년에는 48.4%였으나 1984년에는 76.6%, 1994년에는 86.5%로 증가하였다.

<표-13> 울산지역 수출입 통관 추이
(단위:%)

년 도	수출/수입
1978	48.4
1984	76.6
1994	86.5

자료: <표- 1>과 동일

(2) 수출구조

<표-14>에서 울산지역의 수출구조를 보면 지역수출 상품은 1978년에는 선박이 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타제품(30.8%), 자동차(4.7%)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4년에는 선박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철강(16.0%), 석유화학(12.3%)으로 나타났고, 1993년에는

선박의 비중(17.0%)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석유화학(25.5%)과 자동차(23.7%)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자동차는 괄목할 만한 수출의 신장을 보이고 있다.

<표-14> 울산지역 수출구조
(단위:%)

품 목	1978	1984	1993
선 박	39.5	50.0	17.0
석유화학	2.5	12.3	25.5
자 동 차	4.7	3.9	23.7
컨테이너	-	-	5.2
전 자	1.1	1.3	5.8
섬 유	-	0.3	5.5
철 강	20.1	16.0	11.7
기 계	-	-	3.2
농수산물	1.3	1.4	-
기 타	30.8	15.2	2.2

자료: <표-1>과 동일

(3) 수입구조

<표-15>에서 울산지역 수입구조를 보면 1988년에는 자연생산품이 45.5%, 공산품이 54.5%를 점유하였지만 1994년에는 자연생산품이 69.3%로 증가한 반면 공산품은 30.7%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울산의 수입구조는 공산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연생산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15> 울산지역 수입구조
(단위:%)

년 도	자연생산품	공산품
1988	45.5	54.5
1994	69.3	30.7

자료; <표-1>과 동일

4. 울산의 금융구조

(1)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표-16>에서 울산지역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비교해 보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6> 울산지역의 실물·금융부문의 비교

(단위:%)

구 분	울산 / 전국	울산 / 경남
제조업생산액	8.2	68.9
수 출	11.9	65.9
수 입	12.9	72.0
항 만 물동량	18.0	86.7
전 력 사용량	10.9	52.1
예 금	1.3	25.5
대 출	1.4	23.1
어 음 교환액	4.3	34.3

자료: <표-1>과 동일

(2)금융기관 예대율

1) 예금은행

<표-17>은 예금은행의 예대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의 예대율이 타지역보다 매우 낮은데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크기 때문이다.

<표-17> 예금은행의 예대율 비교

(단위:%)

지역	년 도			
	1990	1991	1992	1993
전국	86.8	90.7	96.7	99.4
서울	86.0	87.6	93.2	92.0
부산	88.8	92.7	94.5	100.1
대구	93.5	91.6	94.7	105.8
울산	63.6	75.8	77.6	79.2
인천	87.0	93.3	96.7	102.3
전주	89.6	87.5	90.1	108.1
광주	88.0	100.9	103.8	108.0
대전	76.0	77.8	81.5	101.1
청주	94.9	99.9	146.5	117.4
목포	95.0	107.4	120.6	79.1
춘천	72.3	73.5	89.9	90.1
제주	75.4	78.8	91.3	108.0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

2) 제 2금융권의 여수신 비율

<표-18>은 울산지역 제 2금융권의 여수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지역 제 2금융권의 여수신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표-18> 울산과 전국의 제 2금융권 여수신 비율 비교
(단위:%)

년 도	울산	전국
1990	55.6	63.6
1991	62.4	88.0
1992	57.9	70.2
1993	54.7	64.5
1994	57.4	64.8

자료: 한국은행 울산지점, 울산지역경제동향, 각년, 각호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3) 화폐환수율

<표-19>는 울산과 경남의 화폐환수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표를 보면 울산의 화폐환수율이 매우 낮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화폐환수율
(단위:%)

년 도	울산	경남
1990	14.9	39.2
1991	14.9	38.9
1992	15.3	41.6
1993	18.9	40.1
1994	17.6	41.9

자료: 한국은행 울산지점, 울산지역경제동향, 1995.6
경남은행, 경남지역 경제분석, 제 30호, 1995. 5.6월 합병호

(4) 자금사정

<표-20>에서 지역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어음부도율 규모를 보면 1994년 전국 및 서울의 어

2) 울산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은 사내들의 외지 유학에 따른 비용, 해운항만청 수입, 고속버스, 항공기, 기차 등 각종 교통요금, 외지업체에 의한 화물운송 요금, TV 수신료, 근로자들의 송금, 근로자들의 외지에서 상품구입 및 울산지역의 각종 토목, 건축공사를 외지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음부도율에 대한 울산의 어음부도율은 각각 3.18배, 5.40배를 나타내고 있고, 일반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률(<표-21>)도 전국수준보다 낮아 울산지역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0>울산지역 어음부도율
(단위:배)

년도	울산/전국	울산/서울
1990	3.00	6.00
1991	4.33	6.50
1992	4.50	7.71
1993	3.92	7.29
1994	3.18	5.40

자료: 통계청, 한국경제연감, 각년
<표- 19>와 동일

<표-21>울산 및 전국의 요구불예금 회전률
(단위:회)

년도	전국	울산
1990	30.9	12.4
1991	39.4	29.8
1992	39.5	36.5
1993	46.9	33.9
1994	-	19.2

자료: <표- 19>와 동일

6. 울산의 지방재정 구조

(1)예산규모

<표-22>에서 보듯이 1993년 한해 동안 울산의 예산규모는 495,623백만원으로 전주, 청주, 수원 의 예산보다 무려 1.4배 내지 2.0배가 되고, 4대 광역시 승격당시 예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산규모가 크며 1993년 현재 광주와 대전 예산의 41.7%와 42.9%에 해당하는 예산규모 이다³⁾.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대전의 당시 예산은 1,447.4억원으로 1993년 울산예산의 29.2%에 불 과하다. 대전의 경우 1993년 예산은 1989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울산시가 광역 시로 승격될 경우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확충 대책이 필요하다.

3)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각년도

예산 세출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볼 때 울산시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의 1.3배나 되는 것은 특수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도시의 성장속도에 비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표-22> 울산시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도시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구	1,997,193	1,049,270	947,923
인천	1,572,219	924,165	648,054
광주	1,187,760	749,387	438,373
대전	1,155,575	663,413	492,162
울산	495,623	215,149	280,474
수원	355,449	207,753	147,696
전주	318,440	156,795	161,645
청주	243,602	155,449	88,153

자료: <표- 5>와 동일

(2)지방세입구조

<표- 2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전체 수입에 대한 지방세 수입이 31.5%, 세외수입 34.9%, 지방교부세 12.2%, 보조금 7.1%, 지방양여금 4.9%, 지방채 9.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66.4%에 불과하여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49.5%이나 세외수입이 14.4%에 불과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비중이 27.0%나 되어 중앙재정의존도가 크다.

<표-2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순계규모

(단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계	<100.0> (100.0)	<63.6> (100.0)	<17.3> (100.0)	<19.1> (100.0)
지방세	<100.0> (31.5)	<100.0> (49.5)		
세외수입	<100.0> (34.9)	<26.2> (14.4)	<36.8> (74.2)	<37.0> (67.8)
지방교부세	<100.0> (12.2)	<100.0> (19.2)		

지방양여금 <100.0>	<100.0>		
(4.9)	(7.8)		
조정교부금 -	-		
보 조 금 <100.0>	<72.4>	<6.6>	<21.0>
(7.1)	(8.1)	(2.7)	(7.8)
지 방 채 <100.0>	<7.7>	<42.7>	<49.6>
(9.4)	(1.1)	(23.1)	(24.4)

주: < >는 行의 구성비, ()는 列의 구성비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4

그러나 <표-24>에서 보듯이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울산시는 우리나라의 시전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 31.5%, 세외수입 34.9%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전체수입의 61.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35.7%가 되어 재정의 자율성이 크다.

<표-24>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세 목	울산시	시전체
계	100.0	100.0
지 방 세	61.1	31.5
세 외 수 입	35.7	34.9
지방 교부세	0.2	12.2
지방 양여금	-	4.9
조정 교부금	-	-
보 조 금	2.9	7.1
지 방 채		9.4

자료: <표- 5>와 동일

이를 다시 <표-25>에서 세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시전체의 경우 보통세는 담배소비세(26.2%), 주민세(19.6%), 종합토지세(14.2%), 자동차세(17.6%), 재산세(7.1%)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지방세의 기본인 재산과세의 비중이 매우 작다.

이에 비해 울산시의 경우는 주민세의 비중이 24.1%로 일반시에 비해 높아 시세수입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소세(8.3%)도 높은 편이나 담배소비세(24.3%)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26>에서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1984- 1994년기간 동안 지방세는 9.2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중 도세의 비중은 증가추세이나 시세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25>지방세의 세목별 구성
(단위:%)

세 목	울산시	시전체
계	100.0	100.0
주민세	24.1	19.6
재산세	6.4	7.1
자동차세	14.6	17.6
농지세	-	0.0
도축세	0.3	0.4
담배소비세	24.3	26.2
종합토지세	12.1	14.2
도시계획세	7.6	8.8
사업소세	8.3	3.7
과년도수입	2.5	2.4

자료: <표- 5>와 동일

<표-26>울산시의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

년도	합계	도세	시세	과년도분
1984	29,078 (100.0)	10,834 (37.3)	18,058 (62.1)	186 (0.6)
1990	154,553 (100.0)	59,250 (38.3)	94,496 (61.1)	808 (0.6)
1994	266,917 (100.0)	105,167 (39.4)	159,158 (59.6)	2,592 (1.0)

자료: <표-1>과 동일

(3) 지방세출구조

다음에는 <표-27>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를 10개 시별로 비교해 보면 울산시는 타시에 비해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높지만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산업경제비의 비중이 낮다.

울산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표-28>과 <표-29>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의회비는 의회운영에 100%, 일반행정비의 비중은 증가추세이며, 기획관리에 47.2%, 재무행정에 38.9%, 내무행정에 12.7%, 공보비에 1.2%를 각각 할당하고 있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증가추세이며 청소사업에 45.1%, 복지사업에 37.8%, 보건위생에 14.0%, 공원녹지에 3.1% 를 각각 할당하고 있다.

산업경제비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역경제에 34.2%, 임업에 33.3%, 농수산에 32.5%를 각각 할당하고 있고, 지역개발비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설사업에 68.0%, 치수 및 하수사업에 16.9%, 도시개발에 14.4%, 교통관리에 0.7%를 각각 할당하고 있다.

문화 및 체육비 비중은 별로 변화가 없으며, 문화 예술진흥에 53.1%, 체육에 44.0%, 교육에 2.9%, 민방위비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민방위에만 100% 할당하고 있으며, 소방부문에 할당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비중은 증가추세이며, 예비비에 99.3%, 지방채상환에 0.7%를 각각 할당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울산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구 100만 도시 울산의 도시규모 및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문화 및 체육활동에 관한 지원과 농림수산 및 지역경제에 관한 지원이 미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27>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교
(단위:%)

구 분	울산	마산	부천	수원	성남	전주	청주	포항	목포	천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 회 비	0.6	0.9	0.6	0.5	0.5	0.8	0.9	0.6	1.0	0.8
일반 행정비	36.0	32.7	30.6	35.6	26.2	29.7	31.1	21.6	28.0	26.3
사회 복지비	13.4	21.1	6.9	19.0	18.6	20.0	22.4	14.9	26.0	29.2
산업 경제비	2.4	3.2	2.5	3.6	2.2	3.7	4.0	2.8	3.3	3.9
지역 개발비	43.2	32.3	34.5	36.7	42.8	36.1	26.1	48.4	29.9	31.4
문화,체육비	1.1	7.1	6.5	3.1	5.7	6.1	8.2	7.5	7.3	5.4
민 방 위 비	0.5	0.1	0.3	0.3	0.2	0.2	0.2	0.2	0.2	0.3
지 원 및 기타 경비	2.8	2.4	5.6	1.2	3.7	3.3	7.0	3.9	4.1	2.6

자료: <표- 23>과 동일

<표-28> 울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항목별 변화 추이
(단위: %)

년 도	1989	1991	1993
계	100.0	100.0	100.0
의 회 비	0.5	0.6	0.6
일반행정비	32.5	32.6	36.0
사회복지비	10.7	11.4	13.4
산업경제비	2.0	2.7	2.4
지역개발비	48.5	46.9	43.2
문화체육비	1.2	1.1	1.1
민 방 위 비	3.0	3.3	0.5
지 원 및 기 타 경비	1.7	1.5	2.8

자료: <표- 23>과 동일

<표-29> 울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
(단위:%)

항	목	비율
의	회 비	100.0
	선 거	-
	의회운영	100.0
일	반 행정 비	100.0
	기획관리	47.2
	공 보 비	1.2
	내무행정	12.7
	재무행정	38.9
사	회 복지 비	100.0
	복지사업	37.8
	보건위생	14.0
	공원녹지	3.1
	청소사업	45.1
산	업 경 제 비	100.0
	농 수 산	32.5
	임 업	33.3
	지역경제	34.2
지	역 개 발 비	100.0
	도시개발	14.4
	건설사업	68.0
	치수·하수	16.9
	교통관리	0.7
문	화 및 체육비	100.0
	문화예술진흥	53.1
	체 육	44.0
	교 육	2.9
민	방 위 비	100.0
	민 방 위	100.0
	소 방	-
지	원·기타경비	100.0
	지방채상환	0.7
	제지출금	-
	교 부 금	-
	예 비 비	99.3

자료: <표- 23>과 동일

(4) 조세부담 현황

다음에는 조세부담 현황을 <표-30>을 통해 보면 울산은 국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낮다. 1인당 국세 부담에서 울산시는 우리나라 시전체 평균의 3.2배이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우리나라 시전체 평균의 1.2배로서 9개 도시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담세액 기준에서 울산시는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으로 미루어 울산시의 산업경제 활동의 결과가 지방재정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예의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30> 조세부담의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울산	성남	전주	청주	포항	목포	천안	춘천	제주	시전체
부담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88.8	40.7	72.9	63.8	6.4	65.4	59.2	67.5	70.3	74.1
	지방세	11.2	59.3	27.1	36.2	93.6	34.6	40.8	32.5	29.7	25.9
세대당	부담액	9,004	1,952	3,000	2,387	1,181	1,767	2,132	2,236	3,073	3,521
	국세	7,996	795	2,188	1,523	76	1,155	1,262	1,510	2,160	2,609
	지방세	1,008	1,157	813	864	1,105	612	870	726	913	912
1인당	부담액	2,633	594	815	698	337	492	646	667	930	1,059
	국세	2,338	242	594	445	22	322	382	450	654	785
	지방세	295	352	221	253	315	170	264	217	276	274

자료: <표-5>와 동일

7. 울산의 농업구조

(1) 농업지대 구분

통상 경지율을 기준으로 농업지대를 구분한다면 경지율이 15% 미만이면 산간지대, 15% 이상 25% 미만이면 준산간지대, 25%이상 40% 미만이면 준평야지대, 40% 이상이면 평야지대로 각각 분류하는데⁴⁾ 울산의 농촌지역은 이 기준에 의하면 준산간 답작지대라고 할 수 있다.

(2) 농가 및 경지이용 현황

<표-31>은 울산의 농가구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가 가구당 인구와 가구당 경지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농가구수,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4) 경남개발연구원, 세계화·지방화를 선도하는 경남의 위상, 경남개발연구원 개원 2주년 심포지엄, 1994. 12. p. 82

1962- 1993년간 가구당 농가인구는 5.9명에서 3.6명으로 감소하였고, 가구당 경지면적은 0.81ha에서 1.26ha로 증가하였다.

<표-31> 울산지역 농가 및 경지이용 현황

(단위: 인, ha)

년 도	농가구수	농가인구	가구당 농가인구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1962	25,724	151,183	5.9	20,955	0.81
1970	24,130	137,342	5.7	19,903	0.82
1980	18,909	93,728	5.0	17,081	0.90
1993	11,133	39,208	3.6	14,067	1.26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 현황, 1993. 6
 울산군, 울산군 통계연감, 1994

<표-32>에서 울산지역의 전답의 비율과 가구당 전답 면적을 보면, 경지면적에서 논외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경지면적에서 1962년 논과 밭이 각각 0.58ha, 0.24ha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논이 0.76ha, 밭이 0.24ha로 나타나 가구당 밭의 면적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가구당 논외의 면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2>울산지역의 전답 구성

(단위: %, ha)

년 도	경 지 면 적			가 구 당 경 지 면 적	
	계	논	밭	논	밭
1962	100.0	70.9	29.1	0.58	0.24
1970	100.0	70.2	29.8	0.58	0.25
1980	100.0	73.2	26.8	0.66	0.24
1993	100.0	76.4	23.6	0.76	0.24

자료: <표- 31>과 동일

(3) 농가유형별 농가분포

<표-33>에서 전업농과 겸업농의 구성을 보면 울산시의 도심부는 전업농이 33.1%, 겸업농이 66.9%인데 그 중 제 2종 겸업농이 47.6%, 1종겸업이 19.3%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울산의 농촌부(울주구 지역)는 전업농이 48.5%, 겸업농이 51.5%(제 1종 겸업 19.5%, 제 2

5) 1종 겸업농은 농가소득의 50% 미만은 농외소득에서 얻고 있는 경우이며, 2종 겸업농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농외소득에서 얻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 겸업 32.0%)로 울산의 농촌부는 중부경남(함안, 선녕)과 서부경남(진양, 합천)의 농촌부보다 겸업농의 비율이 높고 경남 평균보다도 높다.

<표-33> 전업농과 겸업농의 비율
(단위:%)

구 분	전업농	겸업농		
		제 1종	제 2종	소 계
울산 도심부	33.1	19.3	47.6	66.9
울주구 지역	48.5	19.5	32.0	51.5
함안	70.4	14.4	15.2	29.6
선녕	70.1	18.1	11.8	29.9
진양	70.1	16.4	13.5	29.9
합천	77.8	12.5	9.7	22.2
경남 평균	58.1	19.7	22.2	41.9

자료: 농림수산부, 90 농가총조사

울산지역의 겸업농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울산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농취업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4) 연령별 농가호수

<표-34>에서 울산지역의 연령별 농가호수를 보면 울산도심부의 경우 20- 29세 0.8%, 30- 39세 8.6%, 40- 49세 20.6%, 50- 59세 35.3%, 60- 69세 24.7%, 70세 이상이 10.0%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 울산의 농촌부는 20- 29세 1.2%, 30- 39세 10.1%, 40- 49세 20.1%, 50- 59세 33.0%, 60- 69세 25.0%, 70세 이상 10.6%로써 울산 도심부는 50세 이상 인구가 70.0%, 울산 농촌부는 68.6%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 울산지역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34> 울산지역 연령별 농가인구(단위:%)

연령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계
울산도심부	-	0.8	8.6	20.6	35.3	24.7	10.0	100.0
울산농촌부	-	1.2	10.1	20.1	33.0	25.0	10.6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5) 경작규모별 농가분포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규모가 1.3ha이므로 통상 0.5ha 미만의 규모를 소농, 0.5이상 1.5ha 미만의 규모를 중농, 1.5ha 이상 규모를 대농이라고 한다⁶⁾. <표- 35>는 경작규모별 농가분포를 나타낸다. 이표에서 울산의 도심부는 대농이 9.7%, 중소농이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산의 농촌부는 대농이 18.6%, 중소농이 81.4%로 나타나 울산의 도심부는 울산 농촌부보다 농업이 더 영세하지만 울산의 농업구조는 중소농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표-35> 울산의 경작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구 모	0.5ha미만	0.5-1.5ha미만	1.5-3.0ha미만	3.0ha이상	계
울산도심부	46.0	44.3	8.7	1.0	100.0
울산농촌부	32.8	48.6	16.8	1.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6) 농가소득

<표-36>에서 농가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 농촌은 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농촌의 농업소득의존도 20%, 농외소득 의존도 80%, 대만의 경우 농업소득 의존도 25%, 농외소득 의존도 75% 수준에 비하면⁷⁾ 우리 농촌은 농외소득의 의존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표-36>농가소득,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단위:천원, %)

년 도	1991	1992	1993
농가소득	13,105 (100.0)	14,505 (100.0)	16,928 (100.0)
농업소득	10,097 (77.0)	10,778 (74.3)	12,927 (76.4)
농외소득	3,662 (23.0)	4,423 (25.7)	5,040 (23.6)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연감, 1994

6) 경남개발연구원, 전계서, p.104

7) 일본 농림수산성, 농가경제조사, 1993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93

다음에는 <표-37>에서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를 살펴보면 70%대에 있다. 이는 우리 농촌이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외소득원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37>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단위: 천원, %)

년 도	1991	1992	1993
농업소득(A)	7,035	7,356	8,427
가 계 비(B)	9,417	10,046	12,203
A / B	74.7	73.2	69.1

자료: <표-36>과 동일

<표-38>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5-80% 수준에 있어 도농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8> 도·농간 소득비교

(단위: 천원, %)

년 도	농가소득(A)	도시근로자가구 소득(B)	상대소득비(A/B)
1991	13,105	16,219	80.8
1992	14,505	19,146	75.8
1993	16,928	21,186	79.9

자료: <표-36>과 동일

<표-39>에서 농가 가구당 부채를 보면 농가부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생산성 부채가 약 70% 대에 이르고 있다.

<표-39> 농가 가구당 부채 추이

(천원, %)

년 도	1991	1992	1993
농 가 부 채	5,192	5,683	6,828
	(100.0)	(100.0)	(100.0)
생 산 성	3,600	4,094	5,256
	(69.3)	(72.0)	(77.0)
가 계 성	1,027	977	1,056

	(19.8)	(17.2)	(15.5)
차입금상환	565	612	516
	(10.9)	(10.8)	(7.5)

자료: <표- 36>과 동일

이상에서 보듯이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개발을 통해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8. 울산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1) 교통시설

1) 도로

<표-40>은 주요 도시의 도로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의 도로율은 15.39%로 타도시에 비해 낮으며, 시군 통합을 감안한다면 울산의 도로율은 더욱 낮아진다.

울산지역의 도로망체계와 주요 국도는 고속도로 8호선, 일반국도 7호선, 14호선, 24호선, 31호선 등 5개 교통체계는 크게 동서교통축과 남북교통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도로축과의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단 간 순환체계가 미흡하여 화물수송차량이 대부분 도심내로 통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체증이 가속되고 있다.

<표-40> 주요 도시의 도로율과 차량등록 대수 비교

(단위: %, 대수)

도시	도로율	차량등록
대전	22.42	184,992
수원	17.69	114,253
성남	18.85	101,012
춘천	30.25	30,998
청주	17.65	76,666
천안	18.74	32,532
진주	15.76	77,304
창원	18.90	68,101
울산	15.39	119,405

주: 도로율= 도로면적/ 시가지면적

자료: <표- 5>와 동일

2) 항만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공업항으로 수입물량은 국내 최고수준이며, 수출물량은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표-41>에서 보듯이 항만개발 투자의 부진으로 항만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항만의 체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41>항만의 투자실적

(단위: 억원)

년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부산	377 (100)	76 (100)	59 (100)	95 (100)	241 (100)	302 (100)	575 (100)	781 (100)	491 (100)	947 (100)
인천	175 (46.4)	204 (36.8)	231 (291.5)	204 (114.7)	116 (48.1)	142 (47.0)	217 (37.7)	113 (14.5)	108 (22.0)	366 (38.6)
울산	42 (11.1)	28 (36.8)	35 (59.3)	19 (20.0)	42 (17.4)	56 (18.5)	56 (9.7)	76 (9.7)	69 (14.1)	85 (9.0)

주: ()는 부산항을 100으로 했을 때 항만별 투자비율임

자료: 울산해운항만청 자료

최근에는 부산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근 울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 된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동남아 및 환태평양권에 대한 수출물량도 매년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울산항 화물처리 시설로서는 <표-42>에서 보듯이 오는 2001년에 가서는 연간 약 1,150만톤의 화물처리 시설의 부족이 예상된다.

<표-42>울산항의 화물처리 부족 실태

(단위:천톤)

년	도	1992	1996	2001	비 고
총 화 물 량		84,576	93,293	118,347	연평균 약 8% 증가시
시설소요화물량		20,884	28,338	40,610	
하 역 능 력		14,324	20,536	29,136	신항만 포함시
과 부 족		6,560	7,802	11,474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사회간접자본 애로실태와 해소책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 1993. 10. p.56

3) 철도

철도는 다른 육송수단에 비해 정시성, 안정성, 대량수송, 신속성 및 저비용 등의 이점이 있고 울산지역의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 철도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가 복선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철도가 부산에서 포항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연결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4) 공항

울산공항은 1984년 7월 재취항 이후 주노선인 서울-울산간 항공기 이용승객및 화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울산공항 이용승객이 9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울산공항은 활주로 시설의 부족으로 결항률이 대단히 높고 항공기 이용희망자의 60% 정도밖에 수용치 못하여 울산공항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울산시민의 항공이용 서비스가 증대될 것이다.

<표-43> 울산공항 확장사업

시 설	기 존 시 설	시 설 계 획	수 용 능 령 의 변 화
활주로 (m)	1500 x 30	2000 x 45	취항기종: F28에서 B727
계류장(m ²)	10,000	18,000	동시계류: 2대에서 3대(중형)
여객청사(m ²)	841	3,000	여 객: 20만명에서 86만명
주차장(m ²)	6,240	12,240	동시주차: 100대에서 200대

자료: <표-42>와 동일

(2)용수

울산지역 제조업체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중 도로 수송망과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장 큰 현안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표- 44>에서 보듯이 울산지역의 용수는 1994년 1일 269천m³(생활용수 45m³, 공업용수 251m³)가 부족하며 오는 2001년에는 1일 747m³(생활용수 257m³, 공업용수 490m³)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4> 울산지역의 용수 부족량 추이

(단위: 천m³/ D)

구 분	현시설	1994년		2001	
	용 량	수요량	공급부족량	수요량	공급부족량
계	844	1,135	269	1,586	747
생활용수	224	264	45	476	257
공업용수	620	871	251	1,100	490

자료: 울산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울산지역개발 기본구상, 1992. 2. p.28

이와 함께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 주용수 공급관로가 대부분 공단조성 직전, 직후에 설치

된 노후관로로 파손될 위험성이 있고 누수현상이 잦아 수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공업용지 및 공업 지원시설

공업용지는 공업단지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울산공업단지내 공장입지의 재배치, 미개발 공업용지의 개발 등으로 공업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한계에 대비하여 공업지구 확장과 인근지역에 연관공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품공업단지, 전자산업단지, 고도기술산업단지 등 공업구조별 전용단지가 조성됨이 바람직하다.

공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업기반시설과 공업지원시설이 뒤따라야 하므로 현재의 공업단지 규모와 미래의 공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 계획에 의해 수송시설, 공업용수, 전력 등의 공업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산업기술연구단지, 기업경영지원체제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생활기반시설

<표-45>는 최근 광역시로 승격된 대전과 1997년 광역로 승격이 예상되는 울산의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비교한 것이다. 이표를 보면 울산은 대전에 비해 공원, 1일 1인당 상수도 급수량 및 종합병원수에 있어 크게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표-45> 생활기반 시설의 비교(1)

지역	공원		상수도		병원		
	개소	면적 (km ²)	보급률 (%)	1일 1인당 급수량(ℓ)	개소	종합병원	수용인구/병원 (인)
대전	196	11,834.0	92.77	402	931	6	1,279
울산	39	857.8	90.99	308	467	3	1,617

자료: <표- 5>와 동일

<표-46>도 역시 대전과 울산의 사회복지 및 교육시설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울산은 대전에 비해 사회복지와 교육시설이 크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학교당 학급수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대전은 23.6학급인 반면 울산은 33.6학급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전이 28.5 학급인데 비해 울산은 30.2학급이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대전이 19.6개 학과이지만 울산은 14개 학과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울산의 중고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많으며 전문대학은 대전에 비해 학과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46> 생활기반 시설의 비교(2)

지역	사회복지				교육			
	계	아동복지	성인복지	성인시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전	32	15	13	4	59(1,392)	45(1,283)	5(98)	6(242)
울산	2	1	-	1	28(942)	19(573)	1(14)	1(51)

주: ()는 학급수, 학과수를 나타냄
 자료: <표-5>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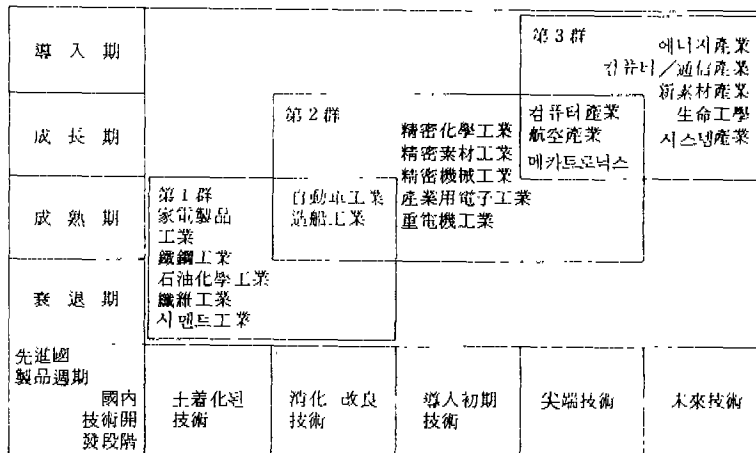
이외에도 울산은 대전에 비해 도서관, 박물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III 울산지역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

이상의 분석에서 울산지역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공업구조

울산지역의 공업은 국내기술 개발단계에서 볼 때 <그림-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와 조선공업을 중심으로 한 소화·개량기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림-2> 울산지역 공업발전 단계

자료: 이만기, 한국경제론, 1989, p.309

금후에도 울산이 국제적 신진공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중화학 공업의 고도화와 연관공업의 집적확대로 중화학공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하고 동시에 첨단기술산업의 적극적인 입지로 중화학공업의 바탕위에 정밀화학, 정밀기계, 산업용전자, 컴퓨터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입지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군에 속하는 고도기술산업의 입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기존 중화학공업과 상호연관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즉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이 동시에 성장·발전할 수 있는 복합공업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업구조의 균형을 위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입지확대와 전용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 유통구조

(1) 생활권역별 상업업무지역 설치

울산시는 1997년까지는 광역시로의 승격이 예상되므로 각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유통시설의 확충·정비가 요망된다. <표-47>에서 보듯이 10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북부대생활권과 중앙대생활권은 도심상업 업무지역으로, 동부대생활권의 현대백화점 일원은 부심상업 업무지역으로 설정하고 그외 지역에는 지구중심상업지역을 설정하여 울산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표-47>통합울산시의 생활권(안)

(단위: 천인, km², 인/km²)

대생활권	권역	기능	인구	면적	인구밀도
북부	구도심부지역	도심상업 업무	220	35	6,280
중앙	신도심부지역	도심상업 업무, 유통	250	40	6,250
남부	온산, 서생, 온양	배후주거, 관광, 휴양	35	30	1,170
동부	동구전지역	지구중심 상업, 업무, 배후주거, 산업	200	35	5,270
서부	부거, 범서, 다운	지구중심상업지역, 주거, 문화	120	25	4,800
무룡	효문, 양정, 강동	배후주거, 관광, 휴양	75	25	3,000
언양	언양, 삼남, 상북, 삼동	주거, 관광, 휴양	150	56	2,680
농소	농소	배후주거	80	15	5,300
두동	두동, 두서	주거, 관광, 휴양	30	15	2,000
웅촌	웅촌, 청량	배후주거	40	20	2,000
계			1,200	296	4,050

자료; 울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우리 울산 이렇게 바꾸자, 1995, p. 195

(2) 대규모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센터(부지 12,005평, 건물 4,895평(9동), 도매시장 청과물 2,333평, 수산물 1,488평, 소매시장 청과물 528평, 수산물 309평, 기타시설 237평)는 광역시 승격에 맞추어 단계적인 확충이 있어야 한다.

즉 1단계(1997년)까지는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출발하여 2단계(1999년) 및 3단계(2001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확장하여 15만평 정도로 확충함이 바람직하다.

종합유통단지 1단계에서는 도매시장으로 청과시장, 양곡시장, 수산시장, 식육시장, 각종 제조공산품 시장을 확충하고 보조시설로서 냉동창고, 소매시장 주차시설, 주유소, 각종 휴게실 및 문화시설을 완비하여 동부 경남의 명실상부한 유통중계센터로 육성, 발전하여야 한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제한적 품목으로 출발하여 점차 취급품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안정성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2단계까지는 그동안 도매기능에만 국한되었던 상적 유통에서 탈피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불적유통(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등)의 종합적, 유기적 정착을 추진한다.

3단계까지는 직접유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활동영역을 유통보험, 유통정보, 유통표준화 등 소위 유통조성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을 종합유통단지내에 완비하여 1일 관광도 하며, 쇼핑 및 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업구조

(1)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업구조 개선

세계화·개방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의 가격과 외국 농산물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쌀은 6.01배, 쇠고기 2.65배 정도, 돼지고기 1.25배, 닭고기 1.41배, 사과가 2.07배나 비싸다. 즉 수입가능 농산물 중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자본이용형 축산물 정도이고 토지이용형 경작작물은 경쟁력이 약하다⁸⁾.

토지이용형 경작작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작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농업구조개선의 핵심이다. 여기서 개방경제하에서 농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핵심적인 성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소농구조하에서, 아울러 겸업농체제로서의 생산주체는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시책 중의 하나로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 농어가 15만호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지역농업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크다. 울산의 경우 수도작과 답리작물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고 특화작목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수도작 전문 경영농가를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울산의 농촌지역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돼지사육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바⁹⁾ 그 경

8)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UR 농산물 협상 관련자료, 1991

영규모가 500두 이상이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복합경영 유형의 규모로 패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를 양돈 전업농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특산품 개발과 비가격경쟁력 강화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등급화, 규격화하고 소포장하여 상표를 붙여 출하시킨다면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시킬 수 있고 불리한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국내산과 수입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국내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흔히 신도블이를 소비자에게 설득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상품차별화시키면 가격경쟁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국내산을 지킬 수 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요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한읍면 한 명품갓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¹⁰⁾. 명품갓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적·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수한 명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명품개발과 연계하여 지방문화를 육성한다면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도 진흥되며 명품이 갖는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3) 농외소득원의 개발

우리나라의 농가는 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농가의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가계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과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외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을 늘려 나가야만 증가일로에 있는 농가 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산지유통의 혁신

산지유통은 유통과정의 출발점이므로 이 단계에서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단계에서도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산지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곧 바로 농가수취가격이 되며 이 가격수준은 생산자의 소득수준에 직결되고 안전성은 소득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농업부문 전체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

농가의 농산물의 판매유형은 크게 정부 또는 농협에 의한 매입, 산지직판, 소비자 판매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판매는 산지 발매기 판매, 문전판매, 5일시장 판매, 산지공판장이나 산지시장 판매 등으로 나누어지며, 소비자 판매는 소비자 직거래 등이다.

소농체제하에서는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생산자 시장교섭력이 약하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므로 협동출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개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동출하수준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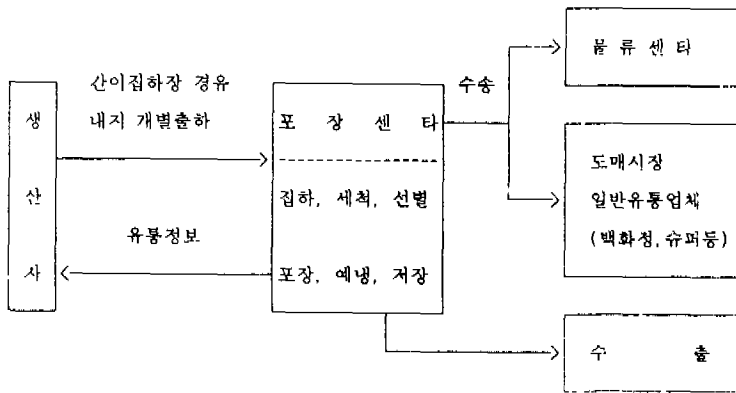
산지단계에서 농산물을 선별, 등급화하고 소포장하여 출하함으로써 생산자 수취가격을

9)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현황, 1993.6,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1994, 울산군, 울산군 통계연보, 1994

10) 울산의 명품으로는 강동의 시설채소, 서생의 배, 온양의 화훼, 삼남의 배, 삼동의 표고버섯(1993년 지정)과 농소의 배, 친상의 배, 범서의 단감, 두서의 한우, 언양의 미나리(1994년 지정) 등이 있다.

높이고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주산지 저온 저장고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수확 직후의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등 출하조절로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수취가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용 소형 저장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하여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산지유통혁신이 농산물 유통혁신의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한 주산지에 과일, 채소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농산물 포장센타를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구심체로 활용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세척, 선별, 예냉, 저장, 등급화, 포장 등 산지에서 할 수 있는 유통기능을 일괄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이를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3> 농산물 포장센타 운영체제도

자료: 경남개발연구원, 세계화·지방화를 선도하는 경남의 위상, 1994.12

4. 지역금융구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격차가 큰 울산지역의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시 지역을 본사로 하는 지방은행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칭 '울산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동부경남의 자치단체, 지역상공인, 지역주민 및 출향민들에게 공모하여 충당할 수 있다.

(2) 울산지역을 본사로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 울산을 본점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1994년 1개소인데 이는 대전(8개), 춘천(3개), 경주(4개), 마산(3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역을 본점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를 신설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창구를 확대시켜 지역상공인과 중소기업체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울산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환원금융체제의 확립

환원기능이 미약한 제2금융권의 일부 기관은 지역수신분을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지역자금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함께 이들 예치자금의 일부를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 2금융권의 지불준비금의 예치를 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CP, 지방회사채, 지방공공채를 일정 비율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신금융상품의 개발

울산의 특수사정을 감안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¹¹⁾. 현재 울산시의 가장 큰 숙제는 공해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행의 수익률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대화장 살리기' 기금으로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의 호응도도 높을 것이고 지방은행의 수신도 증대될 것이다.

(5) 신용대출의 개선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형태를 지양하고 기업의 신용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6) 금융기관 지방본부장의 전결권 강화

은행본부장의 예산, 인사 등 경영 일부에 대한 전결권을 강화하고 지방점포장의 대출 전행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금운용면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7) 체신예금 및 각종 연금의 지역환원

체신예금 및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8) 대기업 본사의 점진적 지방 이전방안 연구

울산지역은 거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수출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금관리 등은 서울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금이 서울로 역류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으로의 점진적 이동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9) 울산 징주권 형성

울산은 공업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취업기회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통·주차난, 공해문제, 여가 및

11) 울산시민들은 지속시 대부분이 수익성을 저축수단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병익, 전개논문, p. 27

문화, 복지시설, 교육문제, 고물가 등의 문제이다¹²⁾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울산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도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크다. 울산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기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 시민들이 울산에 안심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이 커질 때 가능한 것이다.

(10) 억내자금의 억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육기관의 신증설, 해운항만청 수입, 고속버스, 항공기, 기차 등 각종 교통요금, TV 수신료 등의 일부라도 지방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울산지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역내 업체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상구되어야 한다.

5. 재정구조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울산시의 경우 국세의 비중이 타도시보다 높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할 경우 세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지방세원의 발굴과 세원의 적정화

이제까지 획일적인 지방세 구조를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세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정외 세제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론된 새 세금으로는 관광세, 자원세, 공해세, 개발이익세, 토지증가세 등이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공해세와 개발이익세를 신설할 경우 세입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율의 적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세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세와 주민세가 주를 이루나 다른 나라보다 낮다. 더욱이 재산과세의 대부분도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 등)가 보유과세(재산세 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등은 도세이므로 시세의 증대를 위해서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세율 및 과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세외수입의 증대

세외수입 증대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적용으로 편익과 비용을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속성 때문에 실질적 비용부담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이러한 재정수요가 선택적 서비스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볼 때 수익자 부담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 및 수수료의 적정화를 모색하고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고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주민편의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12) 장병익, 전계논문, pp. 28- 29

(4) 보조금의 확대

지방사업의 경우에도 외부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원 이외에 외부효과의 확산범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산시의 경우 일반적 재정조정 재원인 교부세의 배정은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시 발전의 장기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전체적 관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지방양여금의 확충

지방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면서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지방양여금 제도이다. 1991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59%,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를 재원으로 하여 주로 도로사업에 배정하고 있다. 현재 계획은 주세 수입의 양여금 이익비율을 증가시켜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개인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을 도로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원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으며 자주적 이용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 사업인 경우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지방채의 지나친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는 결국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효율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6. 사회간접 자본시설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정비·확충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

1) 도로

울산지역의 도로시설은 도시내부와 공단내의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건설되어야 하며 도시내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가지 가로망 체계와 연계하여 공업단지의 대량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도록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업단지의 화물을 신속히 운송하기 위한 동서가로망과 미포지구, 장생포지구와 온산공단을 연결하여 산업로를 건설하고 각 공업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가능한 한 시가지 외

과으로 우회 유도하며 보조노선을 동서남북측의 기존 계획에 준하여 순환선을 개설하여야 한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불리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도로망 체계의 형성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교통을 유발하게 되고 비합리적인 교통부지를 계속하게 된다. 울산은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부와 계획에 의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신도심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두 지역에 맞는 교통체계를 이룬 후 두 지역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남북간 연결체계를 최종목표로 해야 한다.

2) 항만

울산 본항, 미포항, 온산항을 확대하고 컨테이너 전용항과 신항을 건설하여 가설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지하공간개발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울산 본항은 수출화물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두별로 취급화물을 전문화시켜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산항은 선박의 접안·하역시설을 기존계획에 따라 설치하고 울산의 공업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미포항은 중공업 전용항으로 미포항의 화물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시설물은 현대중공업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울산항의 진국항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화물처리량을 감안할 때 울산항의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이 필요하다. 울산항은 향후 선진문화 공업도시로의 발전과 환동해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단순한 공업항의 성격에서 벗어나 상업항 및 여객항으로의 기능도 겸비해야 하므로 신항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울산-부산간 여객선을 제주까지 연장 운행하고 제주-부산-울산-경주를 연결하는 관광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철도

울산지역의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화물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부산-울산-경주간 동해남부선의 조기 복선화, 공단진입철도의 건설, 울산신항 노선의 신설 및 산업철도의 전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울산역사 주변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상권과 문화권이 자리잡기 전에 삼산지역의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객 및 화물기능을 분리하여 공단인접지역에 여객 전용역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공항

날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와 환동해 경제협력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에 대비하여 공항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선의 확충은 물론 국제노선의 신설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용수

울산지역의 공업용수는 수요총량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므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업단지 확대에 따른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3) 공업용지 및 공업지원시설

울산공업단지가 목표로 하는 복합공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품공업단지, 전자공업단지, 고도기술산업단지 등 공업구조별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공업용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향후 공업입지 증가로 인한 공업용지 부족에 대비한 장기적인 공업용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단지 인접지역과 울주구 지역에 공업입지의 적지를 공업지구로 지정하여 공업용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업지원시설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업단지 규모에 걸맞는 종합기술 연구시설과 그 기능을 갖춘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4) 생활기반시설

1997년 광역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는 울산이 울산정주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의 설립이 필요하고 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과 성인복지시설 및 성인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의료시설로서는 종합병원이 신증설되어야 하며 공원 등의 위락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울산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울산의 공업은 현재 석유, 화학, 기계공업이 중심이지만 향후에는 보다 첨단산업, 미래산업으로 공업구조를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공업입지 확보, 용수 및 공업지원시설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울산의 상업,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유통시설의 현대화, 각 생활권역별로 상업업무지역을 설치하고 대규모 종합유통센타를 설치하여 도매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울산의 경우는 대규모 수도작 전문경영농가를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돼지를 복합경영유형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를 양돈전업농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영농법인체를 육성하고 1촌 1품 운동과 같이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비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며 농외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산지유통을 혁신하여야 한다.

울산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시 울산을 본진으로 하는 가칭 '울산은행'을 설립하고 부족한 상호신용금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원금융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본사의 점진적인 지방이진 방안장구와 울산정주권 형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방안마련과 지방의 신세원의 발굴과 세율의 적정화를 모색하고 세외수입증대 방안의 강구, 보조금 확충 및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울산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및 항공과 같은 교통시

설의 확충과 더불어 생활용수, 공원, 종합병원, 교육, 사회복지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경남개발연구원, 세계화·지방화를 선도하는 경남의 위상, 개원2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4. 12
- (2) 경남은행, 경남지역 경제분석, 제 30호, 1995. 5- 6월호
- (3) 경상남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94
- (4) 성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 UR 농산물 관련 자료, 1991
- (5)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 (6) _____, 지방재정연감, 1994
- (7) 농림수산부, 90 농가총조사
- (8)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연감, 1994
- (9) 울산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우리 울산 이렇게 바꾸자, 처용기획, 1995
- (10) 울산군, 울산군 통계연보, 1994
- (11) 울산시, 울산시 통계연보, 1994
- (12) 울산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울산지역개발 기본구상, 1992.2
- (13)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 현황, 1993.6
- (14) _____, 울산지역 사회간접자본 애로실태와 해소책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1993.10
- (15) _____, 울산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1993.8
- (16) _____, 울산 산업기술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울산지역산업의 발전방향, 1994.1
- (17) _____, 울산상공현황, 1995
- (18)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울산시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1995.8
- (19) 이만기, 한국경제론, 일신사, 1989
- (20)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1994
- (21) _____, 한국통계연감, 가년
- (22)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 (23) 한국은행, 울산지점, 울산 지역경제동향, 1995. 6
- (24) 日本農林水産省, 農家經濟調査, 1993
- (25)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 O. C., 1993